

19년 경력 부검의 “정인이 신체 손상, 우발 아냐...너무 많아”

정인이 부검의 “집에서 생길 수 없는 손상”

“손상 많아서 사고로 생길 수 없다고 생각”

입양모측 “CPR로 손상?”...“소아 약하게 해”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입양부모의 8차 공판이 열린 17일 정인이를 부검했던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정인이의 사망을 부른 신체 손상은 '비우발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하며 '체장 절단'의 경우 '통상 집안에서 발생할 수 없는 사고'라고 고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정인이를 부검했

던 국과수 부검의 김모씨가 출석했다. 김씨는 정인이의 시신 상태가 어땠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손상을 보았다”며 “함께 한 다른 의사 3명도 다 같은(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상이 너무 심해서) 학대나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정인이는 강한 외력에 의한 체장 절단으로 사망했다고 조사됐는데, 김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주 높은 곳에서 추락했을 때 체장이 절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65cm 성인 눈 높이에서 체중 9kg의 16개월 아이를 떨어뜨려서 의

자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체장 절단이 가능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상태로 생기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관련 논문들에는) 집에서 이런 치명적 복부손상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며 “정인이처럼 체장이 절단되고 장간막도 몇군데 찢어질 정도의 손상은 더욱 더 생기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면으로 추구를 보는 방향에서 직각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해야 정인子和 같은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비우발적 손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김씨는 “너무 손상이 많기 때문에 사고로는 다 생길 수 없는 손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는 장씨 측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장씨가 발로 정인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복부에 2회 이상의 강한 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인이 골절 특징에 대해 김씨는 “아동학대를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이라며 “넘어져서 이렇게 생기지 않고 팔을 세게 잡아당길 때 생긴다. 아동학대 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부검을 맡았고, 약 3800건을 부검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CRP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논문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고, 김씨는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이 없다”며 “소아에서는 갈비뼈 골절이 잘 생기지 않는다. CPR은 약하게 하기 때문에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월13일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을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 및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장 A씨는 지난 3월 7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 장씨에 대해 “육구충격을 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좀 무시하고, 내재하고 있는 공격성이 꽤 크다”며 “피해자를 자기에게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해 본인이 가진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장씨가 부인하고 있는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으로 던지는 학대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D씨는 또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PLCR)를 실시했다며,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동재판부



지역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 17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실내테니스장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지역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게임만 한다” 골프채로 자녀 때린 엄마...아동학대 수사

경찰이 컴퓨터 게임만 한다며 10대 자녀를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때린 엄마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5일 10대 자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접수된 신고는 A씨가 말을 듣지 않고 PC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

다.

경찰은 이와 관련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사건이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전남대 총학생회장 탄핵안 ‘부결’...“물러나겠다”

투표율 46.45%·찬성표 49%그쳐 ‘탄핵안 부결’

‘경품 추첨 조작 논란’과 ‘신선지 포교 활동 의혹’으로 촉발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탄핵 투표가 부결됐다. 하지만 총학생회장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16일 진행된 임기안 총학생회장(통계학과·3학년)에 대한 탄핵안 투표가 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대학교 총 선거인수 1만6798명

중 780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은 46.45%다.탄핵안에 찬성하는 투표수는 3823표(49%)로 집계됐다. 투표율 50%·찬성표 66.6%를 넘어야 탄핵안이 통과되는 상황이었다. 투표율·찬성표 모두 기준 미달로 부결됐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장은 “탄핵안이 부결됐지만, 회장직을 사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장은 “그동안 ‘경품 추첨조

작 논란’과 ‘신선지 포교 활동 의혹’ 등 여러 논란을 책임지지 않고, 임기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학생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지난달 부회장 사퇴로 인해 회장단이 공식인 상태에서 임기를 이어가는 것 보다, 차기 총학생회장이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장은 이번주내 중앙운영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최이슬기자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승합차 돌진...부상 4명

경찰, 운전자 의식 잃고 쓰러진 것으로 파악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합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놀이터로 돌진해 아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운전자 A(50)씨를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54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을하다 놀이터로 돌진해 아이 3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 3명과 A씨 등이 부상을 입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아이들의 부상 정도는 경상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상

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을 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놀이터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대로 입건할 예정이다”며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